Q

KBS NEWS

선물 피애가 근 싱킁ㆍ중애 득별세단시역으도 수가 신포 투번에 나다면 되자리면 다른다면 그는 다시 2007 - 그고 나서 2007 보고마 그마크 되어

이 시각 헤드라인



대선 투표율 오후 5시 현재 73.6%… 19대

ON AIR *

K리그 최강 전북 진짜 무기는 '닥치고 수비'

표준화질

뉴스 9



키보드 컨트롤 안내



보다 3.5%p↑

윤석열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이재명 후보 자택, 지금 상황은?

'NLL 월선' 북한 선원 7명, 북으로 송환 …"항로 착오로 넘어와"





많이 본 뉴스

- 1 대선 투표율 오후 4시 현재 71.1%…19대 보다 4%p↑
- 2 이 "수천, 수백 표로 결과가 달라져" 윤 "투 표율 기대에 못미쳐"
- 3 "경북·강원 산불 났는데"···'제주들불축제' 어쩌나?
- 4 [특보] 이 시각 산불 상황과 바람 전망
- 5 20대 대통령선거…전국 14,464개 투표소 서 진행
- 6 '아이폰SE3'·'아이폰13 그린' 공개…시장 평가는?

<

고화질

자동재생 OFF





국민은행, 박지수 앞세워 우승 불 씨 살려

[앵커]

K리그 최강 전북은 흔히 '닥치고 공격'이라는 일명 닥공 공격 축구로 유명하죠.

그런데 사상 첫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올 시즌, 전북이 내세우는 진짜 무기는 수비라는데요.

김기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운재 코치가 골키퍼의 수비를 집중 지도합니다.

주전 수문장 송범근이 가장 배우고 싶어한 건 페널티킥 방어.

[송범근:"페널티킥 어떻게 하면 잘 막아요?"]

[이운재 : "골대까지 안 잡아도 돼, 그건 먹어도 돼. 그건 시원하게 먹어도 돼. 다만 내 무릎에서 2미터, 무릎에서 허리 사이, 여기. 그런데 다섯 개 중에 그게 2~3개가 와"]

전북은 한일월드컵 전설 이운재 골키퍼 코치를 영입했고, 국가대표 중앙 수비수였던 김상식 감 독이 첫 지휘봉을 잡아 탄탄한 수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최소 실점으로, 이미 수비가 강한 전북의 수비력이 한층 더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송범근/전북 골키퍼 : "골을 먹지 않으면 골을 반드시 넣고 승리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는 것 같 아요"]

김진수가 빠져나간 측면 공백은 이유현의 영입으로 메웁니다.

공격진의 파괴력도 여전합니다.

구스타보가 건재하고 지난 시즌 득점 2위 일류첸코를 영입했습니다.

발빠른 김승대까지 복귀해 이른바 '화공 축구'를 내세웁니다.

[김상식 : "세 선수들이 한 40골 정도 합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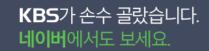
전북은 독일에서 뛰는 국가대표 미드필더 백승호 영입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촬영기자:오광택/영상편집:조완기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대선 관련한 다양한 뉴스 콘텐츠를 KBS 대선 특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김기범 기자 kikiholic@kbs.co.kr 김기범 기자의 기사 모음 🕨

뉴스 9 전체보기







오늘의 HOT클릭!



도…선관위 "모두 유효표"



절반만 찍히거나 겹쳐 찍었어 [20대 대선 인증샷] 내 손으로 신규 확진 34만여 명 역대 최 뽑는 대통령 "투표했어요~"



다…누적 500만 명 넘어서



"경북·강원 산불 났는 데"…'제주들불축제' 어쩌

울진·삼척 산불 엿새째···전체 진화율 70%

피치, 러시아 신용등급 C로 강등…"국가부도 임박"

중국 매체, 한국 대선 각별한 관심···"누가 이기든 한중관계··· '정확하고 재미있게'···미리 보는 KBS 개표방송

지역뉴스

부산 울산 창원 진주 대구 안동 포항 광주 목포 순천 대전 청주 강릉 제주 전주 충주 춘천 원주

뉴스 아카이브 ▼

KBS소개 ▲ 시청자권익센터 사이버 감사실 광고 이용약관 법적고지 개인정보처리방침

KBS N 채널 ▲ KBS WORLD 🔺

KBS / 072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여의도동) / 대표전화 02-781-1000 / 기사배열 책임자,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은정 KBS뉴스 인터넷 서비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 시청자상담실 02-781-1000 / 등록번호 서울 자00297 (2010년 6월 23일)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